**마2536 Note**

**◆Cross check : 사5806-11**

사5806. 이것이 내가 택했던 금식이 아니냐? 곧, 사악함의 차꼬들을 풀어주며, 무거

운 짐들을 풀어주며,또 압제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가게 하며 또 너희가

낱낱의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?

사5807. 그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, 밖으로 버려진 가난한 자들

을 네가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? 네가 헐벗은 자를 보고, 네가 그를 덮어

주며, 또 네가 네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?

사5808.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과 같이 일시에 쏟아지며 또 네 건강이 빠르게 돋아

나느니라, 그리고 네 법적 깨끗함'이 네 앞에서 가느니라. 여호와의 영광, 그가 네

뒤의 보상이 되느니라

사5809. 그리하면 네가 부르면, 여호와가 응답하느니라, 네가 부르짖으면, ' 내가

여기 있노라'고 그가 말하느니라, 만약 네가 네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공허한

것을 말하는 것을 치우면,

사5810. 그리고 만약 네가 배고픈 자에게 네 혼을 꺼내며 또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

만족시키면, 그 경우에는 네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며 또 네 어두움은 낮의

정오(正午)와 같이 되느니라.

사5811.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부단히(끊임없이) 인도하며, 또 가뭄 중에서 네 혼을

만족시키며, 또 네 뼈들을 살찌게 하느니라, 그리고 물 댄 정원과 같이, 또 그 물이

쇠하지 않는 수원지(水源地)와 같이 네가 되느니라,